

<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삼위체는 이와 같이 일체다.

△ △ △ / □ □ □ / ○ ○ ○

그러면서 각위로 존재한다.

2. 사람이 음식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먼저 재료와 자료를 갖다 놓고 만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존재를 위해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명하여 자연적으로 합성되어 자연과 인간의 실제 형태가 만들어지게 하셨다.

편주)

$$E=mc^2$$

E는 에너지, m은 질량(물질) :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다.

3. 사람이 심부름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너지와 각종 자료들을 1단계로 먼저 창조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힘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게 하셨다.

4.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물’을 만드시고 뜻을 위해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5. 비유컨대,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와 같다 하겠다. 지구 안에 자원과 지하자원들을 있는 대로 캐내어 쓰듯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자기 실력대로 묻고 캐내어 그것을 세상에 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수준과 차원에서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선(線)만큼은 가르쳐 주신다.

6. 잡초 속에 약초가 있으면 캐내어 귀히 보듯, 세상 많은 인간들 중에서 약초 같은 자들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다.